

이순신대교 '세계 토목학계 교과서' 됐다

"24시간 콘크리트 타설 등 신기술 배우자"

터키·칠레 등 벤치마킹… 내달 7일 조기개통

오는 2월 7일 조기 개통되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가 '세계 토목학계의 교과서'로 자리잡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첨단 신기술을 선보인 이순신대교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교량 시공업체들이 잇따라 전남을 찾고 있어서다.

교량 공사의 선진국인 미국·일본 등지에서 최근 대규모 교량 공사가 없었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순신대교의 공사 기법에 대한 입소문이 나 각국 관계자들이 입국에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국내 토목학계뿐 아니라 터키, 칠레,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계자 등이 이순신대교를 찾아 공사 현장과 공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토해양부 장관에 해당하는 칠레 공공사업부장관과 주한 칠레 대사 일행 15명이 현장검학을 마쳤다.

수치, 9년만에 '광주인권상' 수상 연설

30~31일 방문… 명예시민 위촉

미안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이운산 수치(68)여사는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 9년 만에 수상연설을 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는 30~31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지난 2004년 수상한 광주인권상 수상 소감 연설을 하고, 광주 명예시민이 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전세 기로 광주공항을 통해 방문하는 수치 여사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명예 시민증을 받고 광주인권상 수상 수감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수치 여사의 5·18 묘지 방문에는 미안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관계자 등 미안마인 40명이 동행할 예정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치 여사는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수치 여사는 '2013 평창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1988년 미안마 민족민주동맹을 조직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수치 여사는 군부 독재 체제에서 수차례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2010년 말 석방됐다.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수치 여사는 지난 2004년 5·18 기념재단이 수상하는 광주인권상을 받았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최첨단 신기술로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을 선보여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교량 설치업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이순신대교. 여수 묘도와 광양 중미동을 잇는 이순신대교는 오는 2월 7일 조기 개통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5m² 인양해 시공하는 헤비 리프팅(Heavy Lifting) 공법도 각국의 관심 대상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순신대교 현재 공정률은 98%에 달하고, 주탑 상단을 가로지르는 공간에 전망대를,

교량 입구 쪽에는 식당과 기념품 판매장 등을 민자 유치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전망대가 설치되면 관광객뿐 아니라 세계 토목 관계자들이 대거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순신대교는 대형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앵커리지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해전사 등을 기록하는 조형물이 설치되는 오는 4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다.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광주 인구 '광산구 쓸림현상'

신흥택지 영향… 전남 감소세 완화 속 영암 6만명 붕괴

광주 146만명 0.39%↑

전남 190만명 0.25%↓

광주지역 인구 분포는 첨단·신창·수완지구 등 대규모 신종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광산구 쓸림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인구 감소폭이 과거에 비해 완만해졌지만, 영암의 인구가 6만명선이 붕괴됐고 곡성은 3만명에 턱걸이하는 등 일부 지역의 이동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094만8272명으로 2011년 말 대비 21만3988명 증가했다.

광주시의 인구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46만9216명으로 전년 대비 0.39%(5752명)가 증가했다.

5개 구별 인구현황은 동구 10만

6495명, 서구 31만7936명, 남구 21만 9041명, 북구 44만4483명, 광산구 37만5509명으로 집계됐으며, 광산구만 전년대비 9592명이 늘었다. 광산구는 915명, 서구 1391명, 남구 728명, 북구 806명 등이 줄었다. 광주의 인구가 광산구로 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88년 광주에 편입된 광산구는 1990년에만 해도 인구가 12만명에 불과했으나 1994년 20만명을 돌파한 뒤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기·첨단지구를 비롯한 신창·수완·하남지구 등 대규모 신종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젊은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 하남산업단지와 대다수의 기아자동차 협력 공장이 입주한 평동산업단지가 있다는 점도 인구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도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190만9618명으로 전년에 비해 0.25%(4721명) 감소했다. 혁신도시 이전이 한창인 나주의 지난해 주거용 건축가변면적이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폭증하고, 행복마을 등 전남도의 이주 정책에 따라 인구 감소율은 둔화됐다.

전남도청 이전 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잇따르고 있는 목포와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둔 순천 등지의 인구가 소폭 늘었다.

반면 곡성은 지난 2011년 3만1332명에서 3만878명으로 감소, 3만명 붕괴가 우려되고 영암은 같은 기간 6만명 이하로 떨어져 5만9997명을 기록했다.

또 완도, 신안, 진도 등 섬을 끼고 있는 지역의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전남 1인당 전력소비량 최고 증가율

5.0%↑… 인구 적어 사용량 조금 늘어도 변동폭 커

전남지역 1인당 전력소비량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상업·산업·공공용 전력 총소비량은 전국 평균 이하지만 전체 인구수가 190만명에 불과해 1인당 전력소비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적어 보니 산업용 전력 소비가 조금만 늘어도 총 전력소비량을 인구 수로 나누는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10월 전국 자자체들의 가정용·공공용·상업용·산업용 등 용도별 전력소비량을 분석한 '국가전력 소비지도'를 21일 발표했다.

1인당 월 전력 소비량은 전국 평균 737.0kWh로 나타났으며 울산이 2141kWh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충남(1747kWh), 경북(1326kWh), 전남(1249kWh), 충북(181kWh), 전북(900kWh), 경남(778kWh)이다.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알림

대선 평가 전국 학술회의

내일 광주시의회서… 한국정치 방향 제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조선대 정치외교학부는 제18대 대선결과를 학문적으로 분석·토론해 한국 정치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학술회를 개최합니다.

▲사회 : 제1회의=박선희 조선대 교수
제2회의=윤성식 전남대 교수

▲발제 : 제1회의=박상철 경기대 교수
이동윤 신라대 교수

제2회의=지병근 조선대 교수, 김욱 배재대 교수

▲토론 : 제1회의=김민전 경희대 교수, 공진성 조선대 교수
최권일(광주일보 정치부 차장)

제2회의=조정관 전남대 교수, 홍인환 광주시의원

안평환(광주 YMCA 사무총장)

황풍년(전라도닷컴 대표)

- 일시 : 1월23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시의회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 주최 :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 주관 :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 후원 : 광주일보사

光州日報社

50년 전통 끼를았는 학교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일 : 평일은 오전9시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원서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 2013. 1. 31(목) 18:00 까지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 2013. 2. 14(목) 18:00 까지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자과정

- 모집대상 :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화 : (062)530-5196, FAX :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대출금리:연5.5% ~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5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5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주시십시오.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씨티은행 지역농협 상성카드폰 더불어저축 슬로몬 저축 대부업체	1년이자비용 4,600,000원 2,100,000원 1,170,000원 9,000,000원 2,800,000원 11,200,000원 4,485,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미성빌딩임대